

수축필름 생산기술 연구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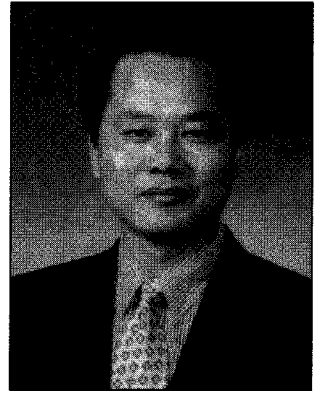
회사체질 개선

연혁

- 1999. 7 위더스케미칼 주식회사로 설립
- 2000. 2 신영수 사장 취임 및 종자
- 2000. 11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새로운 시작

위더스케미칼(주)은 1999년 6월 24일 창립했다. 일천한 연혁으로 동종업계에서 이름도 생소하고 아직 널리 알려진 회사도 아니지만 전신인 삼성화성공업(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많다. 각종 수축필름을 전문으로 생산하던 삼성화성공업이 과도한 시설투자로 뜻하지 않은 부도를 당한 후 사원들의 밀린 월급, 퇴직금으로 회사를 재건해 위더스케미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다. 이홍성 총무과장은 부도 당시 노조위원장으로 회사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미련이 남았었다고 회상했다. 부도 후 직원들의 의견을 규합해 다시 회사를 살리기까지 사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직원들의 의욕과 노력만으로는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자금, 경영, 생산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여 회사



위더스케미칼(주)
신영수 대표 ▶

를 경영할 전문 경영인을 물색하게 되었고 경영 능력과 자금력을 겸비한 신영수 대표이사가 2000년 2월 25일 취임하게 됐다.

회사의 체질 개선

신영수 대표이사는 위더스케미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우선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했다. 우선 방만하게 운영되던 직제를 간소화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팀제로 변환하고,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WORKSHOP 등을 통해 경영을 공개함으로써 임직원의 참여를 높여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워크샵은 임원과 직원간의 거리감을



▲ 위더스케미칼 생산가공제품

좁히고 분야가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원들도 서로를 이해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전 사원들의 화합에 한 몫하고 있다.

특히 신영수 대표이사는 이 같은 노력으로 경기도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고, 지난해 11월 30일 무역의 날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신영수 대표이사는 보스가 아니라 리더이기를 자처한다. 항상 동료들 먼저 배려하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에서 시작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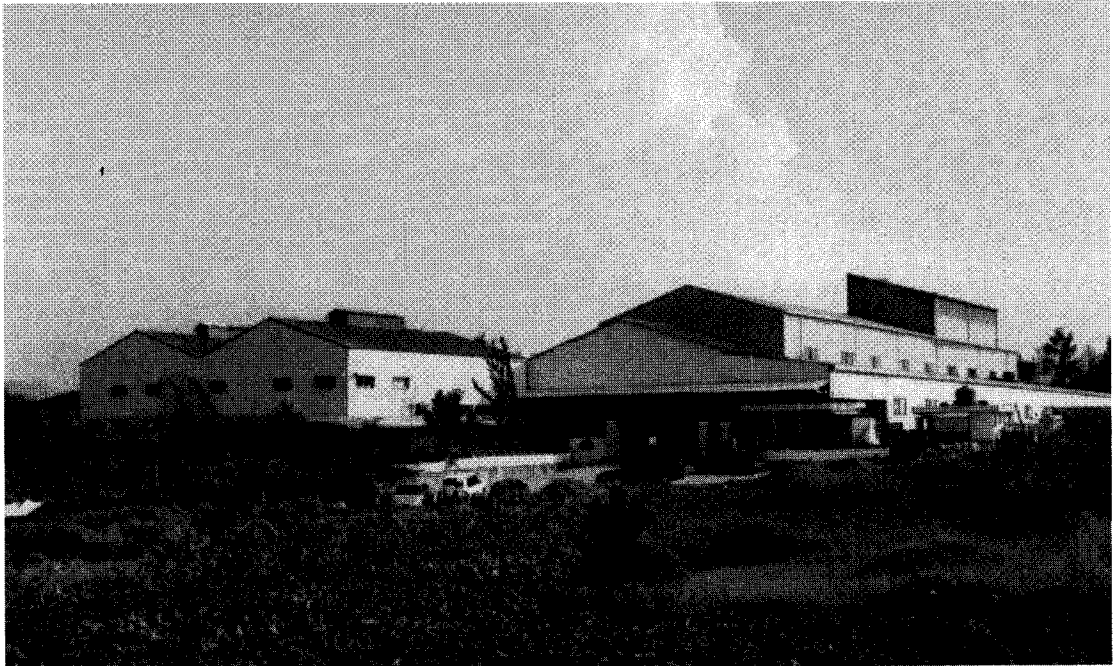
PVC라벨규제와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금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쓰이는

PVC수축라벨이 규제를 당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축라벨 시장상황은 PVC소재에서 PET, OPS 소재로 빠른 대체가 진행중이다. PVC수축필름과 라벨이 주 생산품인 위더스케미칼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기존 PVC수축라벨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대체소재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규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위더스케미칼은 부도와 재기의 과정에서 시간적 아쉬움은 있지만 오랜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다양한 경험으로 대체소재 개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위더스케미칼은 그 대응방안으로 국내시장에 서는 틈새시장, 아직 PVC수축라벨이 규제를 받



▲ 위더스케미칼 안성공장 전경

지 않고 있는 분야에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고, 수출에서는 아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시장으로의 수출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활용의 개념이 국내에서는 여건상 소각이 우세해 PVC재질이 소각시 발생하는 독성물질로 인해 규제를 받고 있지만, 미국 등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폐기물은 매립이 기본이라는 시각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PVC재질이 충분한 상품성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생산하던 다른 수축 필름(PP, PVC, LLDPE 등)들은 국내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위더스케미칼은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다층수축필름(MULTILAYER SHRINK FILM)은 여러 종류의 필름을 화학적

으로 결합, 용도에 맞는 필름을 생산하는 제품이므로 특화된 사용분야가 있다고 위더스케미칼은 밝혔다.

위기는 기회?

흔히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위더스케미칼은 98년부터 약 3년간 위기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부도, 재기, 주생산품의 사용 규제 등의 술한 난제가 있었다. 2001년을 맞아 위더스케미칼은 위기를 기회를 바꾸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구하고 있다.

먼저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팀에서



▲ 위더스케미칼 수출 대기 제품

연구소 설립과 신제품 개발을 장단기 중점사업으로 설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성남공장과 안성공장으로 이원화되어있는 기술력과 설비를 올 상반기에 안성공장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생산성 효율을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시련은 영웅을 만들고, 행운은 게으른 사람만을 낳는다’ 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겪은 위더스케미칼의 풍량이 좀더 발전된 회사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회사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겪은 고초보다 앞으로 더한 일이야 있겠습니까”라는 말로 지금의 심경을 표현했다.

회사의 직원들은 월급차압, 퇴직금 반환 등 몇 년간 겪어야 할 것은 다 겪었다. 그래도 직원들이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배경에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상 자신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돌아보고, 발전한 회사의 사원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위더스케미칼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미래를 개척해나갈 의지는 있다. 누구에게도 보장된 미래란 없으며, 어느 회사도 미래에 번영을 약속할 수는 없다.

하지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회사는 조금이나마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내일일 것이다. 위더스케미칼이 험난한 파도속에서 순항하기를 기원한다. ☐

박기진 기자